

### 목서 뒷마무리 잘하기



한창 수출국 운운하면서 수출에 열을 올렸던 1970년대의 블랙 코미디에 망가진 상품 하나를 들고 코미디언이 '메이드인 코리아'를 외친다. 그러면 이런 코미디를 들고 보면 미국의 시청자들이 와르르 웃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그렇게도 우스운 일인지 코미디에까지 등장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만큼 뒷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회도 드물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그런 습관의 잔재는 구석 구석 들춰 볼 수 있다.

지난 6월 한달 동안은 월드컵 축구의 열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고통이 파묻혀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붉은 악마의 활동 덕분에 오랜만에 자발적인 일체감을 경험하도록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은 그런 열정적인 일체감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뒤끝이 흐지부지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기우이다. 기왕지사 일체감으로 분출했던 에너지라면 이 에너지를 사회의 각 분야에서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으로 활용 했으면 하는 것이다.

가깝게 템플 스테이가 수적으로는 많은 참가자들,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발상이나 경연의 소중한 체험담으로 미루어 보면 확실히 성공하고 또 한국체제를 대표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월드컵이 끝났다고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종교가 다른 시민들에게도 템플 스테이는 답답하고 평온한 체험으로 기억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잘 마무리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외국인은 물론 타종교인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알리는 방편으로는 안성맞춤이다. 특히 서양세계의 가치변화를 동양의 문화 특히 불교적인 컨텐츠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뒷마무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우리도 '메이드인 코리아' 하면 끝판만 뒷마무리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

장마철이다. 비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공급해주는 자연의 선물이다. 하지만 그 물이 지나치면 홍수가 되어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다. 홍수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자체

시 사회적 재앙을 낳고 있다. 인터넷이 게임과 음란, 그리고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만들어낸 게임중독, 성매매, 자살 등의 사회적 병폐가 바로 그것이다. 그 일차적 희생자는 인터넷

동반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위험 수위를 넘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삼립이나 댐과 같은 치수산업으로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홍수는 재앙을 낳는다. 홍수는 자연 현상이지만 홍수 피해는 인재이다. 인터넷이나 성 해방이란 문화적 홍수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대비만 하면 된다. 홍수 재앙을 대비하지

가능하고 또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들은 세계화의 주역이고, 또 정보 이용의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음란사이트나 자살사이트 접근을 막는 '차단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기술주의적 접근법이다. 이는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청소년 성매매나 탈선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원조교제 미끼를 던지고 즐긴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철저한 나와 너의 구분 없이, 이중성이다. 이런 이중성을 버리지 않는 한 문화적 홍수 피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 개개인은 비판적 사고로 무장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사춘이 눈을 사면 배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춘이 눈을 사면 자기도 눈을 사야만 적성이 풀린다.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성적 시각이 발달한 세대이다. 또 '어른들을 본받아' 정신적인 가치보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배급주의가 이들의 무의식을 지배하여, 성을 그 수단으로 생각한다. 어찌구무는 가치관의 혼란이다.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한 행복과 연관지어 사랑, 성 그리고 돈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을 길러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불자 세상보기



김상득 전북대 철학과 교수 윤리학

로 엄청난 힘을 지닌다.

인터넷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은 정보를 손쉽게 전달해주는 지식의 보고요 문명의 선물이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가 암시하듯, 인터넷 역

## 인터넷-익명의 바다, 도덕 불감증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다. 최근 청소년상담세미나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인터넷 채팅 중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 있으며, 제의받은 청소년 중 16%가 실제로 성매매에 응했다고 한다. 성매매를 제의받은 초등학교생 149명 가운데 3명이 응했다고 답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은 자살 사이트를 접속한 경험이 있으며, 10명 중 4명은

는 못하지만 문화적 홍수는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에 눈먼 인간들이 자유를 핑계로, 유행한 인터넷이나 성해방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으로 호도한다.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컴퓨터나 인터넷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이제 생활 자체이다.

인터넷 사용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는 철저한 이중성 사회에 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너의 구분이다. 내 아들이 음란 비디오를 보는 것에 반대하는 선량한 어른들이 자기 아들 또래 중 고생에게 음란비디오를 서슴없이 빌려준다. 내 딸의 원조교제에 대해서는 길길이 날뛰는 이 땅의 아버지가 자기 딸 또래의 여학생들과

스님, 청안청락하신지요. 뒷밭에 상추며 옥수수, 아욱, 가지, 들깨가 한창이겠네요. 태풍이 끼고 간 산토끼와 계곡이 맨 처음처럼 청정해져 있었습니까. 성년 듯 푸르려져 있는 숲의 빛깔에 탄한 눈 짓고, 우당탕탕 흘러내리는 물소리에 어두운 귀를 후벼 파고 싶기만 한데, 이 아둔한 몸은 세속에서, 일상적 삶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깥 출입이 거의 없으신 산중 스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6월 한 달, 이 나라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리는 날, 특히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 날은 어린이에서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합성을 지르고 손뼉을 쳐댔습니다. 원가에 썩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서울 시청앞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붉은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든 수십 만명의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지요. 뭔가 이상하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저 붉은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은 누구인가 하며 짐짓 흥분의 도가니로부터 비켜서려 했지만,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때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은, 제 몸은 저의 것이 아니었지요.

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팀과 경기를 벌이던 날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인사동 가는 길에 조계사에 들렀다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대웅전 앞에 대형 스크린과

### 특별기고

## 월드컵, 그리고 북한산 관동도로

불교대중화와 세속화 혼동하지 말기를

스님과 불자들이 북한산 에워싸고 기도한다면...

그런데, 스님, 텔레비전에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님들께서 축구 중계방송을 보다가 벌떡 일어나 서로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부르



이문재 시사저널 편집위원 시인

니다. 그럴 리가, 선방 스님들께서 그럴 리가...

어떤 이들은 '축구 앞에서 열광하는 스님들이 뭐가 이상한가'라며 반박합니다. 불교 대중화의 일환이라고도 말합니다. 불교가 당대 현실과 시차없이 대화하는 진일보라며 기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스님, 과연 그런 것일까요? 세속적인 모든 인연을 훌훌 털어버리고 대자유인으로 거듭 내려는 스님들에게 월드컵 대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도 인간이고, 스님도 한국인이다. 라는 초등학교 어린이 수준의 반론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 수행이란 일체의 세속적 욕망, 가치, 인연 따위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려는 지극한 인위입니다. 최후를 곧추 세운 수행자와 욕

망의 테마 파크'인 월드컵 대회는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지요. 스님들께서 모르고 계셨던 것일까요? 월드컵 축구대회가 상업주의, 국가(민족)주의, 빈부 격차, 노동 착취, 인종 차별과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았던 것일까요?

월드컵 열기에 편승해 불교를 대중화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불교와 사찰, 스님은 월드컵 열기를 축은해 해야 합니다. 꾸밈없이 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가 대중에게 다가가는 정도(正道)가 아닐까요. 불교의 대중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교 안에 있습니다. 불교가 불교다울 때, 사찰이 사찰다울 때, 스님이 스님다울 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불교의 대중화와 불교의 세속화가 부디 혼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열기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가 집중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새만금 갯벌이 매립되고, 북한산 국립공원이 훼손되는 사태야말로 불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본질적이고도 대중적인 사안이 아닐까요?

스님,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비구와 비구니 스님, 재가 불자들 수만 명이 북한산을 빙 둘러서서 침묵의 기도를 올리는 광경 말입니다. 위기에 처한 뫄새명들이 운집하지 않는 한, 늑지 않았으며 결과부좌하는 스님의 결연함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스님, 여름휴가 때 아이들 손을 잡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을 위해 나무를 베고 산허리를 깎아 도로를 낸 현장에는 북한산을 살리려는 스님들의 수행처 철마선원이 세워졌다.

### 불자약 생각

#### 성보박물관

불자들은 사찰을 참배할 때 성보박물관을 거의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6명이 동참한 불타뉴스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 "사찰참배 때 꼭 관람" 51.2%

과 44명(51.2%)의 불자들은 사찰에 갔을 때 성보박물관을 반드시 관람한다. 42명(48.8%)은 가능하면 한다고 응답했다. 성보박물관을 관람할 때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37명(43%)이 설명부족, 20명(23.3%)이 전시공간의 협소, 17명(19.8%)이 전시유물 빈약, 12명(13.9%)이 기타 라고 답변했다.

임연태 기자

## 티베트 · 수미산 순례

실크로드의 티베트 및 수미산 순례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월에 출발하는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티베트 일주 10박 11일

라사의 포탈라 궁전으로 부터 티베트고원을 횡단,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의 카투만두 까지  
▶ 출발일 : 8월 27일 ▶ 여행경비 : 239만원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장제-시가체-라체-시가-장무-카투만두-인천

### 수미산 순례 17박 18일

우주의 중심으로 불리우는 수미산과 성스러운 호수 마나사로바등 경전상의 수미산의 세계를 찾아 보는 일정으로 특히 올해는 철마년으로 불리며 이애에 수미산 순례를 하면 업장소멸 및 그 공덕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수미산의 신비로운 기운과 영적인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수미산 순례는 고산증후군으로 건강한 분만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수미산 순례에는 최소한 18일이 필요하며 일정을 단축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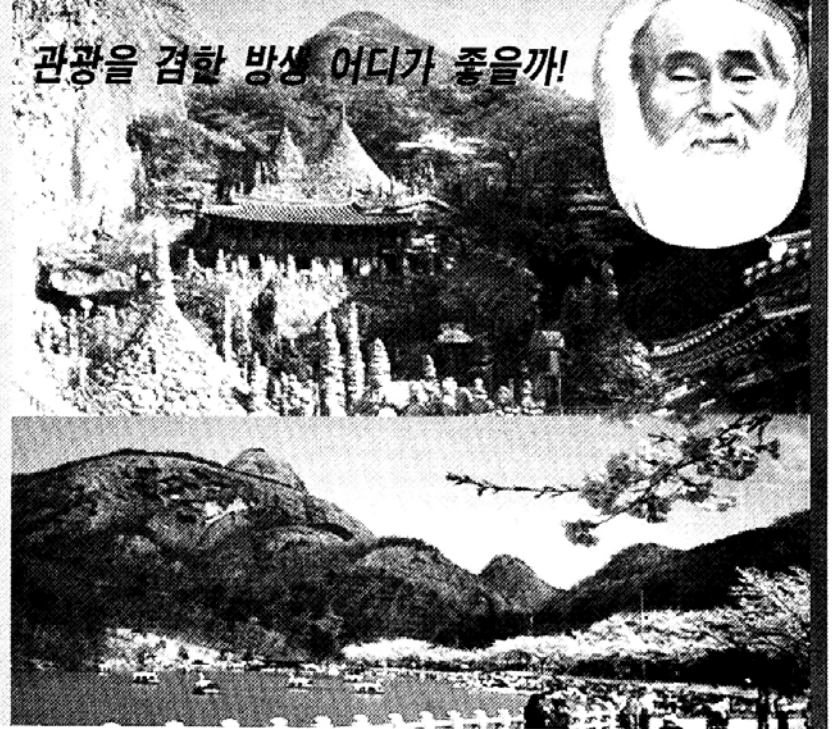
▶ 출발일 : 8월 31일 ▶ 여행경비 : 359만원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시가체-라체-시가-파양-마나사로바-수미산-파양-시가-장무-카투만두-인천

#### ■ 스리랑카 성지순례 5박 6일

▶ 출발일 : 8월 30일  
▶ 일 정 : 인천-상가폴-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로나루와-시기리아-캔디-콜롬보-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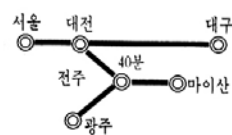
(주)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건너편 신한은행 9층)

##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관공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설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